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차별 끝내라”

명절 전 교섭 타결 촉구... “불발시 신학기 총파업 불가피”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이 핵심 “교육당국, 직접 결단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와 집단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는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전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섭은 지난해 8월 시작된 이후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1회가 진행됐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12월에는 네 차례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과 5일간의 집중교섭이 진행됐으나, 이 역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노조 측은 핵심 요구는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이다. 이는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연대회의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 120%의 명절상여금을 받게 됐다”며 “공공부문 전반에서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는 흐름이 제도화되고 있는데 교육 현장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민위원회 등에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에서의 차별 시정을 권고해왔다”며 “교육당국이 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보다 차별을 유지할 명분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교섭 타결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120% 정률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 전까지 진전된 안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전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오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을 멈춰 세우는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차별을 방치해온 교육당국에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달 교섭대표 교육감인 인천교육감길 접거 농성과 시·도교육감 총회 현장 집회 등을 진행하며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 사전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2026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을 4일 누리집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올해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직종과 시험 일정 등이 담겼다.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7개 직종에 총 200여 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월 23~26일까지 4일간이다. 1차 필기시험은 3월 28일, 면접시험은 5월 2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5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공지한 채용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오는 11일 확정되는 2026년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노경숙 노사협력과장은 “11일 안내되는 공고에는 직종별 채용인원, 자격요건 및 세부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다”며 “교육공무직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는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유아 구강건강 지원사업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유아 건강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는 전북교육청이 유보통합 일환으로 지난해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의 결실을 학부모 등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에는 도내 유치원 151개원 어린이집 110개소의 유아 7,800여명이 참여했다.

치위생사 등의 전문 강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유아 대상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입속 플라그 존재와 충치와의 연관성 이해 △잡자기 전 양치의 중요성과 양치 루틴 생성 △충치 유발 간식과 튼튼 간식 구분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 및 건강한 구강 관리 등이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유아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양치습관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라며 “성과공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일 교내 종합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국립군산대학교 RISE·글로벌대학30 대학상생사업 1차년도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역 상생 인재양성·혁신 생태계 구축

국립군산대, 'RISE·글로벌대학30' 성과공유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장민석)은 지난 3일 교내 종합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국립군산대학교 RISE·글로벌대학30 대학상생사업 1차년도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RISE사업 및 글로벌대학30 대학상생사업 1차년도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이룬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에 RISE·글로벌대학30 상생사업에서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 오후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차년도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공유, 유공 표창, 전시 관람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오전 일정으로 진행된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는 RISE사

업 및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 성과를 발표하고,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심사 결과 군산 지역 특산품 꽃새우를 활용에 말탄한 식감의 디저트형 샌드 제품인 '꽃새우말랑샌드'를 발표한 'bloomarin' 팀(대표 식용영양학과 박서희 팀원 박예진, 이나라, 한정화)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이 선정됐으며, 특히 수상 팀들은 지역 산업 현장과 연계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 개회식에는 지자체, RISE·글로벌대학30 대학상생사업 참여 교수진, 유관기관 및 협력 기관 관계자, 참여 학생과 지역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양 사업의 성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과공유회는 단순한 발표 중심 행사 아닌 세부 과제별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시 공간은 인재양성, 연구 과제, 평생학습, 글로벌대학30으로 구성되어 교육과정 운영 결과와 현장 적용 사례,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 성과가 함께 공유됐다.

국립군산대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성과공유회는 RISE와 글로벌상생 사업의 1차년도 동안 지역과 함께 만들어 온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RISE사업단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도출된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양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이주민 친화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 우석대, RISE 직업평생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우석대학교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주민 친화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나섰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3일 전주캠퍼스 문화관에서 RISE사업 직업평생교육 부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과 나춘균 전라북도외국어자원봉사회장, 전용진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협의회장을 비롯해 교직원, 성인학습자, 재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 운영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모델은 지역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JB지산학협력단 모범사례로 선정돼 전국 RISE 포럼에서도 우수사례로 공유된 바 있다.

행사에서는 지역 외국인 지원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특강도 진행됐다. 나춘균 전북도외국어자원봉사회장이 강

연자로 나서 외국인 주민 지원 활동 사례와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또한 우석대 미래융합대학은 전북도 외국어자원봉사회, 한국외국인유학생 법률지원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법률 지원 강화, 이주민 생활지원사 역할 확대 등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한·중 청년 교류 강화

우석대, 중국 현지서 동계 캠프 진행

우석대학교가 중국 현지에서 진행한 동계 캠프를 통해 한중 청년 교류를 한층 강화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산둥사범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한 ‘한어교’ 동계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 15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우석대학교 재학생과 전북 지역 고등학생 등 13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베이징 도착 후 자강성 등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산둥사범대학교 국제교육대학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연수에 들어갔다. 환영식에서 류진카이 서기는 축사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과 활발한 교류를 당부했다.

연수 기간 동안 학생들은 중국어 수업과 함께 중의학, 다도, 전통악기, 무술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 산둥성 박물관과 공자의 고향 곡부 등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문화 체험 기회를 가졌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동계 캠프



는 공자아카데미가 주도한 의미 있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이 중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13일까지 도내 전 지역 교육행정기관·공립학교 대상 특별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달 13일까지 도내 전 지역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헤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번 특별점검의 목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 훼손 행위 △명절 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청탁금지법·갑질근절 교육 여부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올 6월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출마 예상자 등과 불필요하게 접촉하거나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SNS·선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전북교육청은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흥열 감사관은 “설 명절 기간 공직기강 점검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 근무 분위기 일신을 위해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는 점검 활동이 필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신뢰 기반 교사 성장, 초등 수업 컨설팅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오늘까지 실행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5월 이틀간 전주대학교 자유관에서 ‘초등 수업 컨설팅 역량 강화 실행 연수’를 진행한다.

수업 컨설팅은 수업 중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수업 전문가(컨설턴트)와 교사가 함께 해결해 가는 수평적 문제 해결과정으로, 교사의 수업 능력·설계·평가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컨설턴트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초등 수석교사 지원단·수업혁신 도지원단·교육지원청 수업컨설팅 지원단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적 수업 컨설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4일에는 이미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수업일관성 분석을 통한 수업 개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 2026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나이팅게일홀에서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정책 안내 △학교급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실제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및 학교 현장 대응 △약물 중독의 이해와 회복·연계 지원 등을 주요

강의에서는 수업 목표와 수업 내용, 방법, 매체 활용, 평가 간의 일관성을 분석하는 컨설팅 방법을 안내하고, 수업일관성 시정교 교수학습설계안 분석 등의 실습을 병행한다.

이어 5일에는 고은현 배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학습동기 전략 분석을 통한 수업개선’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교 교수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기유발 전략을 살펴본 뒤, 교실 속 문제 상황을 참여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실습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내용으로 운영됐다.

강원원 문제해결강과장은 “학생 마약류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원이 중심이 되는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